

사회 >> 3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 해제

기획 >> 4면  
 비흡연자의 권리 VS 흡연자의 자유, 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현장르포 >> 5면  
 학벌 중심 사회 속, 비진학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제585호  
 2025년 2월 19일(수)

##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일본과 제주도로... Global Core 프로젝트, 성황리에 마무리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추진사업단이 주관한 Global Core 프로젝트가 지난 12월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월 5일, 6일 이틀간 유담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A에서는 팀 배정과 아이디어 도출, 팀별 발표가 진행됐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부합하는 주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택해 팀을 꾸렸다. 이후 팀별 회의를 통해 주제 관련 구체적인 페르소나(수혜자) 설정과 수혜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 얻고자 하는 가치를 종류별로 서술했다. 2일 차

에는 페르소나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 후 8개의 팀 중 4개의 팀이 프로그램 B(일본), C(제주도)에 참여해 현지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 B는 10월 29일~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 클라우드 회사 오라클 재팬 사옥에 방문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사내 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3일 차는 팀별

자유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인터뷰와 지역 탐방을 진행했으며, 4일 차에는 아사쿠사 신사와 인근 전통 시장을 방문했다. 중간중간 담당 교수와의 멘토링을 통해 활동 방향성을 잡기 위한 조언을 들었다. 프로그램 C는 11월 20일~22일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카가오 본사 스페이스 닷원에서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례 관련 강의를 듣고, 기업 라운딩을 통해 제주 천연환경을 향상시킨 건축물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2일 차에는 팀별 자유 활동 및 인터뷰가 이어졌다. 12월 6일, 유담관에서 열린 프로그램 D에서는 일본과 제주도에서 도출된 사례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최종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 담당 교수들의 피드백이 이어졌으며, 추후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본 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프' 팀의 김정현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우 인터뷰]**  
 - 김정현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학년)  
**Q. 프로젝트 참여 소감이 어떠한가요?**  
 A. 협력은 물론 글로벌 역량까지 기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팀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 서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며 견문을 넓히기에 용이했습니다. 국내에서만 진행했을 경우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됐을 수 있으나, 연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었기에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A. 저희 팀 '베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일상 속 배리어프리를 주제로 선정했는데, 도쿄 디즈니씨 배리어프리 파트장님과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쿄는 우리나라와 달리 휠체어 대여 이용률이 확연히 높고, 교통약자도 손쉽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게 설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해외 각국의 휠체어 사용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도쿄 디즈니씨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 A에서 낸 아이디어가 활동을 통해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A. 네,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경험에 초점을 뒀 페르소나 설정을 강화한 덕분에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A에서 교통약자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예측해 페르소나를 설정했지만, 프로그램 B에서 교통약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쿄역 탐방을 통해 엘리베이터 휠체어 탑승 시 누르기 어려운 버튼의 위치, 지하철 특 넓이와 교통약자 슬로프 표지판 등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표지판을 시야에 맞춰 바닥과 입구에 부착해야 할 근거를 덧붙여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천원의 아침밥 시행 2년, 학우들의 만족도는?



지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2년째를 맞았다. 우리 대학은 청운관 식당 계약 만료 이후, 북악관 GS25와 청운관 이마트24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체해 사업을 진행했다. 대학생 아침 식사 습관화 및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된 본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영학부 A 학우는 "천 원으로 간단하게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품질이 전 이른 아침에 도시락을 사서 먹는 것"과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동학과 B 학우는 "얼마 전 청운관 이마트24에 도시락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특정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해 모두 팔았다고 했다"며, "1인 1개 구매 제한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자컴퓨터공학과 C 학우는 "10시가 넘어서 방문해도 도시락이 쌓여 있던 것을 목격해, 작년보다 인기가 식은 것 같다"며, "차라리 다른 학교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밥 한 끼도 선택하기 힘든 요즘,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실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 이야기, 2024학년도 Career Challenge Campus 성료

2024학년도 Career Challenge Campus가 지난 11월 4일부터 22일 까지 3주간 실시됐다. Career Challenge Campus는 현직자 초청 직무 집중 프로그램으로, 직무별 현직자를 초청해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취업 준비 방향성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 및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는 서경대학교 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유담관 L층 Co-Working Space와 11층 PBL실에서 실시됐다. 더불어 4개 프로그램 이상 이수 시 졸업 필수요건인 비교과 캠프 이수 Dream Camp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으며 많은 학생의 참여를 이끌었다. 서경대학교 홍보실은 프로그램에 5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기초 취업 준비 프

로그램 △현직자 직무 특강 △동문 선배 초청 직무 특강 △CEO 초청 특강으로 구성됐다. 기초 취업 준비 프로그램(Basic School)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커리어 브랜딩 실습, 면접 준비 특강, 해외 취업 준비 길라잡이, 공공기관 취업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전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현직자 직무 특강(Job School)에는 광고 영업, 재경, 회계, 인사의 4개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가 직무 특강을 진행했다.

동문 선배 초청 직무 특강(Alumni School)에는 마케팅·광고 직무, SW 개발 및 빅데이터 직무, 아르디렉터, 물류, IT 개발, 생산관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동문 선배의 직무 특강이 이어졌다. CEO 초청 특강(CEO School)에는 동양제약 최호진 부회장, 대한제분그룹 글로벌 심충수 김진규 대표이사가 본인의 커리어 스토리 공유 및 취업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서경대 포탈

비교과프로그램 메뉴에서 각 행사의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현직자 직무 특강은 관련 학과의 전공 수업과 연계해 참석 인원이 빠르게 마감되기도 했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wvd@skuniv.ac.kr)

**사 령**

2월 19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합니다.

▶ 임 수습기자  
 김민채 (금공 24)



# IT 인재 양성을 위한 실력 겨루기

#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한국IT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MOU)체결

SKON 미래융합 AI/SW 역량 강화 프로젝트

## 서경대학교 총장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서경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역량 강화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1. 18. (월) 09:00 ~ 2024. 11. 26. (화) 24:00

| <코딩필수역량인증(POCE)>   | <코딩전문역량인증(PCCP)>  |
|--|---|
| 일시   2024.12.06.(금) 13:00 - 14:00  | 일시   2024.12.06.(금) 15:00 - 17:00                           |
|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Java, C++ 중 택1  |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Java, C++, JavaScript 중 택1               |
| 대상   비전공자 재학생, 40명 (비전공자 신청인원 미달 시, 전공자 1~2학년 참여 가능) (선착순 마감)                      | 대상   소프트웨어학과/컴퓨터공학과/전자공학과 (특수전공, 부전공) 2학년~4학년, 80명 (선착순 마감) |
| 신청방법   포스터 부착 QR코드   |   |
| 참여혜택   수상자: 총장상, 장학금 지급<br>참가자: 프로그래밍 인증서(단건자격증) 발급, 기념품 증정<br>*주최: SKON 미래융합 프로젝트 |   |
| 주최   서경대학교   | 주관   소프트웨어학과, 전자컴퓨터학과                                       |



▲ 출처 : 서경대홈페이지

## 서경대학교 총장 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개최

지난 11월 18일, 서경대학교 북악관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역량 강화를 위한 총장배 프로그래밍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코딩필수역량인증(POCE)과 코딩전문역량인증(PCCP) 두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생들 본인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회 접수 기간은 총 9일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다.

대회는 공식 POCE와 PCCP 시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POCE는 Python, Java, C++ 중 하나를 선택해 총 50분 동안 응시하는 것으로, 비전공자 재학생과 전공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PCCP는 Python, Java, C++, JavaScript 중 하나를 선택해 총 120분 동안 응시한다. 해당 영역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를 포함한 전공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대회를 통해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총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결

과, 필수역량인증 부문에서 최서영(소웨24) 학우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세 명의 우수상 수상자에게 20만원이 지급됐다.

코딩전문역량인증 부문에서는 김성현(컴공 19) 학우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 7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세 명의 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이 지급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코딩역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USB와 키링과 같은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번 총장 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IT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 됐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IT(정보기술) 산업은 글로벌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AI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관련된 투자와 연구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과 한국IT전문가협회가 지난 11월 12일 IT산업 분야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IT전문가협회는 1985년 체신부 승인 1호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 IT 분야의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IT 전문가 집단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정보인의날 기념행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뉴딜일자리 사업과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사업 등 SW 인력양성 교육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회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은 4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창업 공간 제공과 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 출처 : 한국IT전문가협회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 IT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교육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IT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첨단 IT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물적 지원 교류, 전문 인력 양성, 세미나 추진 등이 있다.

이철민 캠퍼스타운 단장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IT 전문가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배성환 한국IT전문가협회 회장은 "이번 협력이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수습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지금부터 하늘이 맑아질 거야”...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학술제 성료



▲ 출처 :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극은 2019년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의 명장면들을 재현했다. 액션 장면이 많아 마이크를 쓰지 않을 정도로 생동감 넘친 연극은 애니메이션 속 소품을 완벽 재현해 관객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연극을 관람한 A 학우는 "무대에 무릎을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온몸을 다해 연극에 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며 "특히 테루테루보츠 소품이 귀여웠다. 작년에 학술제를 준비할 때의 설렘과 긴장이 떠올라 1학년의 떨림과 같이 마음 졸이며 무대를 봤던 것 같다"고 감상을 전했다.

연극이 끝난 후 내용에 대한 퀴즈, 장기 자랑, 행운의 번호 뽑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상품으로는 신세계 상품권, 핸드크림, 일본 과자 세트, 담요 세트 등이 지급됐다.

이벤트를 끝으로 학술제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막을 내렸다. 연극 전공이 아님에도 서툰 일본어로 무대를 채운 1학년 학생들의 노력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며... 서경대 대플, 'GA4 자격 과정 교육' 주관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 대플)가 본교 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실무 교육 강좌를 열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된 'GA4 자격 과정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지표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이다. 여기서 GA4는 Google Analytics 4의 약자로, 구글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Universal Analytics(UA)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출시한 차세대 데이터 분석 도구다. GA4는 최근 마케팅 및 경영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웹 분석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본교에서의 교육은 4일 모두 북악관 208호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이해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략 세우기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강사와 소통하며 충분한 실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관련 어려움 해소를 적극 돕겠다"는 본교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측의 취지와 개설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문과학대학 소속 4학년 A 학생은 "비록 전공 강의 시간과 교육 시간이 겹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강좌가 열린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학교 차원에서 열어주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플 주관하에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 혹은 상담 관련 정보는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seokyeong\_job)을 통해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 출처 : 한국IT전문가협회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새로움을 담아낸 서경대 디자인학부 생활문화디자인전공 2024 졸업 전시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11월 6일(수)부터 11월 10일(일)까지 열린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생활문화디자인전공 '제30회 2024 졸업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에 위치한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지하 1층 SKON 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졸업 전시회는 '디토(Ditto)'와 '튜토리얼(Tutorial)'의 합성어인 '디토리얼(Dittorial)'을 주제로 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가진 'Ditto'를 의미하며 구매하고 싶은 매력적인 제품과 공간을 구현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방법을 '튜토리얼' 하듯 친절하게 안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본 전시에서는 입장 시 제공된 리플릿과 영수증 책갈피를 이용한 이벤트도 펼쳐졌다. 관람 전, 영수증 상단에 취향을 체크하고, 마음에 드는 부스의 스티커를 부착해 영수증 책갈피를 리플릿 뒷면에 끼워 하단에 '전시 후 발견한 나의 취향'을 적어 보여 주면 봉투와 전시엽서, QR 스티커를 지급했다.

또한, 전시장 내부 굿즈 숍에서는 떡볶이, 머그잔, 아크릴 열쇠고리, 엽서, 스티커 팩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졸업 전시회는 강지은(졸업 전시회 준비 위원장), 고서영, 김민아, 김민지, 김아영, 김유빈, 김유정, 김은지, 김혜인, 박가은, 박민성, 서정민, 송예림, 송은원, 신유

빈, 안은지, 윤세빈, 윤은서, 이예스더, 이유진, 이윤진, 이재홍, 이준용, 이호준, 임민지, 장유진, 정병주, 정민희, 조현영, 하예민, 한호원 총 31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참여 학생 전원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졸업작품을 진행했다.

김민채 수습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출처 : 서경대홈페이지

## 한 눈에 보는 이슈

|  |   |  |  |   |  |
|--|---|--|--|---|--|
| <h3>정치</h3> <p>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 해제</p> | <h3>경제</h3> <p>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요동치는 세계 경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p> | <h3>사회</h3> <p>"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불거져</p> | <h3>문화</h3> <p>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과 출판업계의 이면</p> | <h3>연예</h3> <p>'김새론 비보' 조명 한 외신들... '韓 연예인에 완벽함 요구, 엄격한 잣대'</p> | <h3>스포츠</h3> <p>황의조 '불법 촬영',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튀르키예 리그 선발 출전</p>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 해제



▲ 출처 : 한겨레

지난 12일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해당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의 행보에 대해 '폭거'라 지칭하며 종북 및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특정 정부 및 민간 기관에 대한 균경 투입이 실시됐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 최정예 특수부대가 동원됐으며, 이들은 국회의사당 통제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후 계엄사령부 설치 및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이 있었고, 6개 항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및 이탈 의료인의 미복귀 시 처단 등 위험·위법한 사항이 다분했다.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과 그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감행하며 국회 본회의실로 향했고, 의원 보좌진들과 시민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서 처열하게 대치했다. 12월 4일 0시 49분경,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 및 비상

계엄령해제요구 결의안 안전 상정 등이 이뤄졌다. 오전 1시 01분, 재석 통제, 전공의 및 이탈 의료인의 미복귀 시 처단 등 위험·위법한 사항이 다분했다. 헌법상 계엄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후 계엄군 철수는 진행됐으나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직접 해제까지 유지했으며, 5시 04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 기준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비상계엄 종료 후 즉각 진상규명 및 조사가 진행됐다. 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이번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조사 과정에서 입법기관인 국회 점거 시도, 유력 정치인 및 언론인 체포 및 구금 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이 밝혀졌으며, 그 외 많은 위헌 및 위법 사항 때문에 사실상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판명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 후 구속됐으며 계엄 가담인 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계엄사령관을 역임한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연정현 육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탄핵, 직무 정지, 구속됐다. 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및 가결, 체포 영장 발부가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원수가 삼권분립 체제와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도 있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집결한 시민들의 투쟁,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계엄 해제, 작전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어떠한 참사가 발생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외교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 공포, 상처를 심어줬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요동치는 세계 경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자리를 되찾았다.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시행할 정책 공약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산업적 변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어젠다47'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 경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인행 캔터 파츠제럴드 최고경영자인 하워드 러트릭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감세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 감세 정책으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소와 소득세 감면이 있다. 이는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재원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로 보충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축소 역시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 출처 : 연합뉴스

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선 관세 정책은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원화 가치 하락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에 지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10.0원으로 개장한 직후 장중 1410원을 돌파했다. 한때 환율은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 지난 10월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대중국 견제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유지되거나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수입관세의 인상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한국

자동차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중국산 부품 수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부품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철강 산업에서는 향후 232조의 재산정으로 쿼터 부과에 대한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화학 산업에서는 보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자국 제조업이 보호되고 수입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연이은 관세가 예고되면서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국내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수출구조 다변화, 관세·비관세장벽 대응력 제고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재 수습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불거져

지난해 11월, 동덕여대가 남학생 입학에 논의한 사실이 공개되며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본관 점거와 함께 수업 거부로 선언한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래커칠과 함께 설명자홍상을 훼손했다. 본관 앞은 재학생 및 타 학교 학생들의 학교 점거로 가득 찼다. 또한 졸업생들은 졸업장을 반납하는 행위로 시위에 동참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공동체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본관 점거 장기화로 발생한 재산 피해와 학사 운영 차질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일각에선 남녀공학 전환이 시대에 맞춘 변화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대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교내에 부착된 대자보에선 “여대의 끝은 공학 전환이 아닌 자기 소멸”이라며 “여대는 여성들이 성폭력, 물가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여대생’이 아닌 ‘대학생’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학내 갈등에서 이어진 논란은 젠더 이슈로 불거지면서 학생들은 대학 본부의 ‘불통 행정’을 시위의 본질로 꼽았다. 학생들은 이전부터 학교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불만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학내 시설 보수 건에 대해 꾸준한 문제를 제



▲ 출처 : 연합뉴스

기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묵인했고, 결국 재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여성학 전공 과정 일방적 폐지, 학사 제도 개편 등 꾸준한 학생 의견을 묵살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불신이 쌓인 것이다. 한편, 학교 측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성의당을 지목하자 여성의당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동덕여대의 사학재단 운영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성의당은 “학교 재산인 서초동의 시가 15억 원대 아파트를 수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1촌부터 6촌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앉혀 초호화

회식을 했다”며 재단이 수백억을 횡령한 것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는 덕성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 전국의 여대로 확산됐다. 여대 공학화를 우려한 학생들은 연대의 메시지와 함께 학내 시위를 이어갔다. 이 중 광주여대는 공식적으로 공학 전환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위는 학외로도 이어졌다.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동덕여대 공학 전환 철회와 더불어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 없는 민주동맹’ 집회가 열렸다.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은 ‘여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구성

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반발을 샀고, 서경대 또한 학사 구조 개편 강행으로 재학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동덕여대를 비롯한 많은 여대에서 공학 전환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학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는 민주적인 소통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과 출판업계의 이면



▲ 출처 : 교보문고

지난해 10월 10일(현지 시간)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강은 지난 2016년 작품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지난 2017년 작품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한국 문학에 한 획을 그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그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빙발했다. 수상 다음날 교보문고 오전 실시간 베스트셀러 이었다. 온라인 서점들 통한 주문부터 주요 서점에서 한강의 작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출판업계는 노벨상 수상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재고 소진으로 인한 중쇄 요청이 있을 정도로 출판업계의 호황이 이어졌지만, 그 이면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같은 달 17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는 보도자료로 통해 교보문고가 자사 이익을 위해 지역 서점에 한강의 책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당일, 교보문고는 서점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자사 유통 서비스의 주문을 막았다”며 “출판계 단비에 취한 교보문고는 결국 눈앞의 욕심으로 지역 서점들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는 교보문고가 15일부터 한강 도서 1종당 10부로 제한하여 주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보문고는 소매업체이자 서점들에 책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다. 한국서련 주장에 따르면 한 작가의 책 판매량이 백만 부가 넘을 때(17일까지도 해당 책을 받은 지역 서점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서점 등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교보문고는 같은 달 21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붙인 안내문을 통해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며 “이 기간

한강 작가 도서 구매는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교보문고 실무진은 한국서련을 방문해 도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점을 사과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책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갈등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교보문고의 대처에는 다양한 반론이 이어졌다. SNS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상생을 위한 과감한 결정을 응원한다”는 글을 남기며 교보문고 대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 작은 책방 연합조직인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호소문을 통해 “도매를 겸하고 있는 대형 서점은 전국 책방으로 책을 공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전국 서점에 도서 공급을 막고 오직 자사의 온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집중했다”며 “상생 마케팅이라는 미명 아래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도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작은 서점들은 어떻게 대형 도매업체를 먹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며 도서 유통 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그 이면도 함께 조명되면서 출판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게 했다. 대형서점과 지역 서점이 공정한 방식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판업계 및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2024년 11월 14일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동시 시행됐다. 올해 수능은 총 52만 2,670명이 응시했다. 그중 재학생은 34만 777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9만 893명이다. 이 같은 수험생들은 주변의 많은 응원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수능이 끝나면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항공권, 영화표, 미용실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쏟아진다.

반면 응원받지 못한 수험생 뒤

에는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가려져 있다. 사회는 이러한 가려진 학생들을 '비진학 청년'이라 부른다. 비진학 청년은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1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 중에는 대입을 준비하는 재수생, 창업과 취업의 준비를 위해 사회 진출을 모색하는 청소년, 무직 상태의 청소년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대입을 위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진학 청년의 출신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교사들로부터 대입 이외의 조언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진로 준비가 이뤄지기 힘들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비진학 청년들이 막바로 노동시장에 나가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개선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직접 비진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그들의 삶을 알아보고자 한다.

## 다가오는 미래 앞,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한 비진학 청년

초·중등 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을 겪는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직업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와 특목고로 분류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흔히 직업계고등학교라 칭한다.

2024년 마이스터고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72.6%, 7.6%다. 특성화고의 2024년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52.3%, 51.4%다. 이 같은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8%, 대학 진학률은 48%다. 그에 비해 2024년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43.9%, 진학률은 62.8%로 진학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직업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여전히 대학 진학을 원치 않아 취업과 창업의 길로 나서는 학생들도 있다. 이들을 사회에서는 '비진학 청년'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현재 삶의 양상을 '진로 결정 수준'과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의 두 축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유형에는 '목표 불실행', '휴식·유예형', '방향 없는 성실형', '군입대 제약형', '경계 없는 탐색형'이 있다.

먼저 '목표 불실행'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운다. 창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학원이나 정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스터디 모임 등을 활용해 목표로 향한다.

두 번째, '휴식·유예형'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나, 목표 불실행과 달리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가 뚜렷하지만, 이를 준비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해 실제 취·창업에 도달하기 힘들다.

세 번째, '방향 없는 성실형'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꾸준히 자기 계발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는 이유

는 불안정한 경제력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 관련 없는 여러 분야에 표류하게 함으로써 진로 모색을 힘들게 한다.

'군입대 제약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입대를 앞두고 명확했던 진로가 흔들린다. 군입대는 학생들이 생계를 위해 이어온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장벽이기도, 진로를 고민하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경계 없는 탐색형'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비진학 청년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이유가 모두 다른 것처럼,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나간 비진학 청년이 맞이하는 어려움 역시 제각각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진학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계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출처 : 포토뉴스

# 학벌 중심 사회 속, 비진학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우가 많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비진학 청년들은 직장 생활 시 저임금, 비숙련, 장시간 노동, 단순적인 경력 축적, 직장 내 소외 등을 경험한다. 특히, 일반고 졸업생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비진학 청년을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만나본 A 씨는 달랐다.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전제로 취업을 선택한 그녀는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다양한 업무 경험 후 진로를 확정해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해 적성을 찾는 것이 아닌, 실무를 먼저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그녀는 대부분 스타트업에 종사해 부당대우나 차별은 크게 겪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의 지원자 자격 요건이 '대졸'인 경우가 많아 첫 직업을 찾는 것이 특히 힘들었다"며 취업 당시를 회상했다. "고졸을 뽑는 기업이 많지 않고, 일했던 기업들도 원래는 대졸 채용 예정이었으나 예외를 둔 경우"라며 "고졸들이 사회에 나오며 자격증, 대외 활동 등 스펙 준비성이 적다 보니 경쟁에 밀려 대부분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 지식이 없어 업무 초기에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 대졸보다 부당대우 대처가 어려운 것 같다는 A 씨는 "첫 인턴 때, 패 인지도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0시 야근은 기본"이었다며 입을 열었다. "1시까지 야근했으나 최저시급에 포함임제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 노트북을 퇴근 후에도 확인하고 심지

## 진학과 취업, 선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어려운 날 날에도 보도록 강요해 거부하지 못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비진학 고졸 청년들은 학력이라는 문턱에 부딪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A 씨의 사례처럼 기업의 채용 기준에는 대부분 학력이 우선시되고, 고졸 학력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많은 비진학 청년이 실업을 경험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기도 한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실습에 투입되거나, 안전 장비가 부족한 환경에서 작업하며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3년 10월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당한 산업재해는 총 53건(산재 신청 및 산재 외 처리 합산 건수)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비진학 청년의 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고졸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성화고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산업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연도   | 현장 지도점검 결과 및 유형별 지적사항(권익침해) |        |       |       | 산재 건수 | 산재+권익침해 |
|------|-----------------------------|--------|-------|-------|-------|---------|
|      | 유형 위반 업무                    | 수당 미지급 | 성희롱 등 | 부당 대우 |       |         |
| 2018 | 0                           | 0      | 0     | 1     | 2     | 1       |
| 2019 | 1                           | 1      | 6     | 8     | 23    | 6       |
| 2020 | 4                           | 0      | 5     | 9     | 5     | 3       |
| 2021 | 1                           | 0      | 8     | 5     | 12    | 2       |
| 2022 | 6                           | 0      | 5     | 4     | 5     | 2       |
| 합계   | 12                          | 1      | 24    | 27    | 47    | 14      |

자료: 교육부, 서울용 특별자치시장 의원실

▲ 출처 : 경향신문

## 각기 다른 도전에 맞서는 고졸 청년들을 만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청년과 대학 자퇴 후 진로를 탐색 중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과 고민을 들어봤다.

먼저 서울시 금천구에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방화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20세 사업가 B 씨를 만나봤다. B 씨는 "재수 생활 중 만난 한 네트워크 회사 대표님께 학창 시절 만들었던 인터넷 보안 제품을 높이 평가받으며 사업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B 씨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나를 사업 동반자로서 믿기 어려웠다. 금융권에서도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며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학력 문제 역시 또 다른 장벽이었다. 그는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투자사를 찾아다닐 때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경력과 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얻는 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편견이나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B 씨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터넷 보안을 보급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는 또래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전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며 책임감의 무게를 강조하는 조언을 남겼다. 이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진정한 사업가가 될 준비가 된 것"이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또 다른 21세 청년 C 씨는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전공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필요 없는 졸업

장을 얻을 시간에 나와 맞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도 C 씨의 선택에 큰 힘이 됐다. 그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대학 졸업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자퇴 후 생긴 걱정을 털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고졸이라는 학력에 따라오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겪은 어려움은 없지만, 취업 과정에서 분명 장벽이 생길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 씨는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방황하는 또래들에게 "고민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느껴도, 세상은 넓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두 청년은 대학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중이다. 대학 비진학, 어쩌면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대학 비진학이라는 상황을 겪은 두 청년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준다.



▲ 출처 : 게이이미지뱅크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을 따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목표

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하기에, 그 선택이 반드시 대학 진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한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그들에게 계

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고졸 채용 확대나 창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고졸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학벌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등한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대학이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 수 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비진학 청년의 도전을 응원한다.

## 주간칼럼



## 대안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양극화

주간 방미영 교수

최근 국내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대안언론이 등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방송사나 신문사가 중심이 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안언론의 양극화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대안언론의 개념은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안언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미디어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를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대안언론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나 억눌린 진실들을 보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업적 이익에 의해 보도의 방향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안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대안언론의 등장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대안이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었다. 대안언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손쉽게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지역적인 이슈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류 언론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뉴스 구조와 전문적인 저널리즘을 따르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 반면, 대안언론은 자주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종종 특정 사회적 문제나 불평등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행동을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안언론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 대안언론은 기존의 '정상성'을 의문시하고, 종종 다수의 목소리보다 소수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와 관련한 보도에서 대안언론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 정치적, 경제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

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대안언론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한계와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자금과 자원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대안언론은 상업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보도의 질과 양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안언론의 신뢰성 문제다.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대안언론 역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받을 경우가 많다. 일부 대안언론이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선동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대안언론으로 인해 독자들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구분하고 소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대안언론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이 정의와 규범 등 도덕적 기준점이 선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심찰과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분석력이야말로 양극화된 대안언론을 올바르게 소비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 기자의 눈 |

## 목욕탕부터 동전까지, '미개한' 문화가 아닌 '이해할' 문화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갔던 목욕탕은 항상 이른 아침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이 목욕탕에 간다면 오전 시간을 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침에 사람들이 탕에 들어가기 전에 채로 채워진 깨끗한 물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언제 목욕탕에 갈 거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늦은 저녁을 선택할 것이다. 저녁의 목욕탕 물은 이미 여러 사람이 사용한 후라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인들은 그 점을 오히려 선호한다. 왜 그럴까?

일본인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물 또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이른 아침의 깨끗한 물은 지나치게 순수하고 신성하게 느껴져, 그것을 깨고 탕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다른 이들이 먼저 사용한 물이라면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여긴다. 일본은 온천에 가면 새로 받은 깨끗한(일본 사람들은 거칠다) 물에 노를 저어 깨는 직업도 있다. 사실, 노를 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만, 두 나라의 인식 차이와 '물을 깨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진다. 또 다른 문화 차이의 예시로, 교수님께 들은 일화다. 교수님의 지인은 한국인이고,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다. 어느 날, 부부가 합계장을 보러 가서 금액이 1,320엔이 나왔고, 한국인 아내는 카드를 사용해 계산했다. 그런데 이를 본 일본인 남편은 동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카드를 썼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동전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1,320엔과 같은 금액이 나오면 2,000엔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신속한 계산을 위해 카

드를 사용할 것이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문화가 강하다. 동전 크기별로 나눠 담을 수 있는 전용 지갑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큰돈을 깨는 소비 습관은 좋지 않아. 동전으로 계산하느라 시간이 걸려도, 뒤에 줄 선 사람들 중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일본에서는 동전 하나까지 아껴 쓰는 소비 습관이 자연스러운 반면,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을 더 중시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버스가 보편화될 정도로 실물 화폐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 일화는 한국과 일본의 소비문화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쪽은 신속함을, 다른 한쪽은 근검절약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의 문화를 바라볼 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미개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각 문화가 나름의 이유와 가치를 지니며 오랜 시간 전 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수습의 눈 |

## 소비자가 만드는 변화, 불매운동의 힘

소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소비는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의 잘못에 책임을 묻고, 더 나은 소비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적으로 일었던 불매운동은 단연코 2019년의 '노 재팬(NO JAPAN)' 운동일 것이다. '노 재팬'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하자'는 취지의 애국 행위로 번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비자는 저마다 각자의 일상에서 일제를 지우기 위해 국내 브

랜드에서 대체품을 찾으려 노력했다. 결국 그해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5.1% 감소했고,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다. 불매운동은 얼마 가지 못할 거라던 예측을 뒤엎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2022년에는 SPC를 향한 불매운동이 뜨겁게 일었다. 거품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소비자들은 SPC 계열 사부터 이들이 제품을 납품하는 모든 기업까지 불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이토록 강경한 데에는 2023년 기준 SPC 계열사에서 월평균 약 13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

비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소비자가 대다수는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분노했을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이 여성 소비자가 이탈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정 작품의 혐오 표현 사용이 원인이었는데, 네이버 웹툰의 미온적인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 소비자들은 회원 탈퇴와 쿠키(웹툰 열람용 전자화폐) 환불 등으로 불매에 동참했고, 그로 인해 2024년 12월 네이버 웹툰의 월간 이용자(MAU)는 2023년 9월 대비 59만 명이나 감소했다. 불매운동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남기는 건 아니다. 종종 기업을 불매하지는 취지가 되려 애꿎은 자영업자에겐 피해를 안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건 필연적이나, 과연 내가족 혹은 지인이거나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소비자로 하여금 불매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렇기에 불매운동의 여파로 기업이 아닌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자체가 개선돼야 할 따름이다. 소비자의 역할에 자영업자에 관한 책임까지 수반된다면 문제의 주체인 기업은 지워지지 않겠는가.

불매운동은 부정에 저항하는 다수의 행동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작용한다. 단순히 구매 거부로 넘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싸고 좋은 제품 사면 그만이지, 기업의 윤리 경영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문제를 의식하며 현명해지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이다.

신기나 수습기자

(yulyul1214@skuniv.ac.kr)

## 사 실

## 생리공결제, 배려와 갈등 사이 불안한 줄타기

지난해 8월,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가 여학생 생리공결제 사용에 대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 결석의 공결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안내문으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은 후 '소변 검사 실시가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생리 공결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을까?

그러나 서울예대는 해당 공지문을 게시 10일 만에 철회했다. 소변검사를 통한 생리 여부 확인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여학생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예대의 조치가 논란을 빚으며 생리 공결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한번 뜨거워진 현재, 다른 대학들은 생리공결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서경대학교는 한 학기에 최대 세 번까지 생리 공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진단서 제출이나 교수와의 추가적인 조율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해 본교의 여학생들은 "교수가 남성이면 생리통을 설명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포털 신청 방식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양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 등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정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교수 재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학교도 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온라인 출석 앱을 통해 결석 사유를 '생리 공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앱의 관리자는 과목 담당 교수나 조교이기 때문에 공결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한 중앙대 대학생은 "어떤 교수님은 생리 공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교수님은 관련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별 생리공결제 적용 방법과 운용 여부는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운용 방식의 차이는 생리공결제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연휴 전후로 생리공결 신청이 급증하는 사례, 거주 지역과 무관한 지역의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생리공결제가 출결 관리에서 불공정한 특례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리공결제도는 단순한 출결 인정 수단일 뿐 아니라,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여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그러나 제도가 본래 취지가 다르게 운용되거나 악용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리 공결이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학생들 스스로 성숙한 태도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이나 일괄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리공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 교수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수습의 눈 |

## 미래를 비춘 혁신, 인류를 파괴한 기술

밥을 먹다 뉴스를 볼 때 먹먹한 문장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공공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어린이들의 죽음 소식은 뉴스의 긴급 속보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단순히 사망자의 수로 답할 수 없는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의 생명이었다. 한창 뛰놀 나이엔 가족들과 이별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가 수없이 많았다. 수많은 별빛이 무한한 우주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생명이 사고라든가 모습도 봤다. 그들의 삶은 시작도 못한 채 '혁신'이라는 이름의 군사 무기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었다.

인을 위해 사용된다. 군사 분야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군사 무기가 만들어졌다. 무인 드론은 하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며, 정밀 타격 미사일은 손쉽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됐다. 위와 같은 기술은 점점 완벽해가게 되었고, 조영 조건이나 각도가 달라져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기술이 자국과 국민의 거주지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문제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기술의 목적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생각하는 것은 우매하고 안일한 태도일 수 있다. 기술이 지닌 양날의 모습은 윤리적인 문제의 본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물음에서는 쉽게 답하기 못했다. 현대에서 군사 무기를 만들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국민의 안전성인지, 무고한 목숨의 희생으로 얻는 자국의 보호인지가 혼동했기 때문이다. 무인 드론과 정밀 타격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무기는 본디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기술이 윤리적 가치를 잃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혁신이 아닌 파괴의 도구로 변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됐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선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기술이 윤리적 가치를 잃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혁신이 아닌 파괴의 도구로 변한다.

미래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군사 무기 발전이 인류를 위한 방향인가는 것이 맞나?'는 의문이 들었다. 국방력이 강화되고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무기가 이제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이 진정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본질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단지 전쟁 중인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만든 철창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리포트의 질문을 생각해 보자. "무인 군사 무기를 개발하

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됐는가? 기술은 점점 완벽해가게 되지만 완벽함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 되물게 됐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발전이 인류와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오늘의 책

수면 밖의 언어 - **인어가 잠든 집** (2018) \_히카시노 게이코



▲ 출처 : 예스24

딸아이의 사립 초등학교 학부모 면접을 보러 온 '가오루코'에게 온 한 통의 전화.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갔으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딸 '미즈호'가 식물 인간이 됐다는 소식이다. 남편 '가즈마사'와 논의 후 단념하고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려는 찰나, 미즈호의 손이 살짝 움직인 것 같은 감각에 그녀는 딸의 연명 조치와 재택 간병을 결심한다.

첨단 기기 사업체 '하리마 테크'의 사장인 가즈마사는 연구원 '호시노'에게 자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 뒤로 그에게 딸의 치료를 맡긴다. 가오루코는 호시노와 함께 딸에게 첨단 의료 기술을 적용한다.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표정이 바뀌는 등 미즈호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딸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호시노 또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도취감에 빠진다. 하지만 가즈마사는 딸의 상태에 절망하고, 미즈호의 할아버지와 이모 또한 가오루코의 행동에 학을 떼다.

미즈호를 살아있는 아이로 보이게 하기 위한 그녀의 광적인 집착은 더 심해져 아들 '아쿠토'의 입학식에 딸을 데려가기까지 한다. 이 일로 그는 파멸을 당한다. 엄마가 자신의 생일파티에도 누나를 참석시키려 하자, 그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며 누나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충격받은 그녀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대고, 경찰을 부른다. 도착한 경찰 앞에서 그녀는 딸에게 칼을 겨누고 형사에게 묻는다. "사람들은 딸이 벌써 오래전에 죽었는데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답니까. 제가 딸의 가슴에 칼을 꽂아 아이의 심장이 멈추면 저는 살인자인가요?"

책 '인어가 잠든 집'에서 '뇌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접목하여 대립한다. 호시노와 그의 선배의 대립, 가오루코와 나

지 가족들의 대립, 에토 가족과 가오루코의 대립. 하지만 그 안에는 모두 같은 문제가 존재했다. 뇌사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뇌사자를 자신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지, 뇌취야 하는 건 아닌지 말이다. 뇌사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이러한 대립을 통해 타인에게 본인의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어긋난 모성애로 인한 비극을 보여 주는 동시에 뇌사자에 대한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국 미즈호의 장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부모는 그것으로 딸을 기린다. 하지만 가오루코가 아무 고민 없이 무작정 딸을 살리는 것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뇌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간병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중한 일인가?라며 계속해서 고뇌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는데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에서 과연 정답이란 것을 내릴 수 있을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세상을 조각한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 - **올해의 작가상 2024**



▲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2년부터 SBS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해 온 '올해의 작가상'이 올해에도 개최됐다. 매년 네 명의 작가를 선정해 신작 전시와 제작, 작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해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권하운, 양정욱, 윤지영, 제인 진 카이젠 작가가 참여했다. 각자 다른 사연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은 1층과 지하 1층 전시실에 걸쳐 전시돼 있으며 증마다 두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필자는 이곳에서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과 그들만의 고유한 색채를 감상했다. 윤지영 작가는 조각의 문법을 활용해 감춰진 원인의 결과를 작품에 투영한다. 윤 작가는 "조각은 외부의 영향력과 내면의 반응, 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며 외부의 압박과 개인의 내면적 대응을 탐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녀의 초기 작품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찢어지고 부서진 물질, 파괴와 고통이 강조됐다. 하지만, 최근 작품에선 소원을 빌고 소원 성취에 감사하며 바치는 봉헌물과 같은 매개물을 통해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권하운 작가는 가상현실(VR)을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권 작가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만들어내 관객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기억과 이야기를 VR을 통해 작품으로 선보였다. 특히, 이번엔 주목할 신작은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원주민 부족의 기억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작품이다. 선사시대에 살았던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관객들이 VR로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양정욱 작가는 움직이는 조각을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 작품

을 창작했다. 그는 반복되는 움직임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이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했다. 이 기법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재료로 기존 형태와는 다르게 변형해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기법이다. 양 작가는 이를 통해 일상적 이야기를 넘어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 확장해 관객에게 강력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인 진 카이젠 작가는 영상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 역사 그리고 문화를 탐구한다. 다양한 인물과 표정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변화와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내내 상상력의 한계를 찾아내고 싶었다. 네 명의 작가들이 펼쳐낸 세계는 무한한 경험을 선사했다. 단순히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담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 전시기간 : 2024. 10. 25(금) ~ 2025. 03. 23(일)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전시실
- 관람시간 : 월, 화, 목, 금, 일 10:00~18:00 / 수, 토 10:00~21:00
- 관람비용 : 개별권 2,000원 / 수, 토 18:00~21:00 무료관람 /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오늘의 장소

낭만이 가득한 LP 카페 - **하우스 오브 바이닐 성수**



턴테이블로 엘피판을 재생하는 감성 넘치는 이곳은 이미 엘피 청음 카페로 유명한 하우스 오브 바이닐(House of vinyl)의 분점이다. 연남, 망월, 연희에 이어 네 번째로 성수점을 열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세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우스 오브 바이닐 성수점은 1960년대 홍콩의 청춘들이 살아가던 모습을 담은 공

간으로, 전정과 혼란을 지나 경제적 도약을 시작하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모여들었던 곳에서 피어난 청춘들의 생기와 희망이 이곳의 시작이 됐다고 한다. 그 시절 홍콩의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만들어 청춘들이 느꼈던 열정과 소소한 행복을 상상하며 공간을 채워나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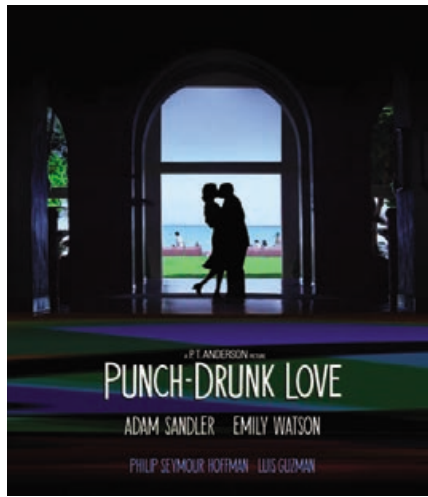
공간은 우드 바닥과 아이보리 톤의 벽 타일로 마감돼 깔끔하고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높은 층고와 널찍한 공간은 오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을 선사했다. 책상, 의자, 용단, 발, 조명, 포스터 등등 당시 홍콩을 재현한 듯한 가구와 소품이 눈길을 끌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 속에서 감각적인 조명들이 곳곳을 비추어 주는 분위기를 뽐냈다. 주방 오른쪽에서

송민경 기자 (tilldown012@skuniv.ac.kr)

- 주 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 29 2층
- 영업시간 : 매일 11:00~22:00 (디저트 마지막 주문 21:30)

오늘의 영화

정신 못 차리는 사랑에 취하다 - **펀치 드링크 러브** (2002)



▲ 출처 : IMDb

누구나 어떤 감정 상태에 도취된 적이 있을 것이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소의 우리와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감정 표현에 서투르던 이가 행복에 겨워 사랑한다는 말을 연신 내뱉을 수도, 차분하던 이가 분노해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떠한 연유로 평소와 달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Punch-drunk'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랑에 도취된 사람은 어떻게 변모할까? 영화 <펀치 드링크 러브>는 한눈에 반한 여자와의 사랑에 취해, 변화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파란색 양복의 베리, 우리의 주인공이다. 그는 한 사업체의 사장이지만 7명의 누이에게 시달리고, 사용하지도 않을 항공권 마일리지 때문에 푸딩을 수백 개 사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다. 특이한 울음을 터뜨리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어른의 탈을 쓴 어린아이 같기도 하다. 이성을 사귀는 일은 당연히 없다.

그런 그에게 빨간 원피스를 입은 레나가 나타난다. 우연히 베리의 사진을 보고 그에게 호감을 느낀 후 접근한 그녀. 햇살처럼 빛나는 그녀에게 베리는 이 세상 아무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크기의 사랑을 느낀다.

사랑이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하고, 그의 온 신경은 그녀에게 쏠린다. 압도적인 크기의 사랑 앞에서 그는 마치 취한 듯 보인다. 그녀 앞이라면, 그녀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우습게 여기거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돈을 위해 그를 헐뜯하던 헐박범들이 레나에게 사랑을 입히자, 그간 헐박범들에게 핏짜 못

하던 그는 단숨에 헐박범들을 해치우고 본격적으로 찾아가 답판을 짓는다. 이때의 베리는 제정신이라고 하기엔 넋이 나가 있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 사랑이라는 깊고 매혹적인 것에 완전히 취해버린 탓이다.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을 목도할 수 있는 영화다.

베리가 레나에게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영화에 취하게 된다. 영화는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비롯해 중간중간 형형색색의 이미지를 삽입해 영화를 보는 우리를 현혹한다. 이러한 이미지에 매력 있는 캐릭터와 멋진 연출의 향연이 중첩되어 영화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이 영화에 도취되면, 아름답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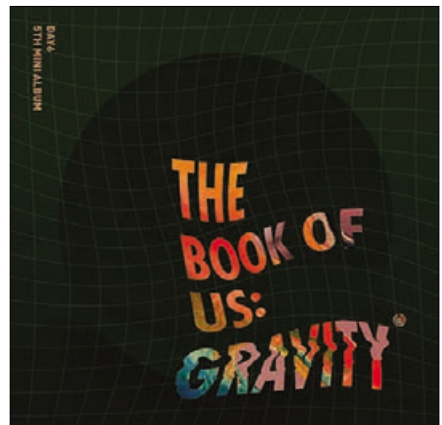
뛰어난 작가주의 성향의 영화를 만드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사랑에 대해 스타일리하게 풀어낸 이 영화를 추천한다. 순수한 남자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변모하는지 지켜보며 사랑의 역동성과 적극성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견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오늘의 음악

새로운 한 해, 힘이 되어주는 **밴드 음악**

흔히 새해를 맞이하고 듣는 첫 음악이 한 해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한 해를 무사히 마치고 듣는 첫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새해 다짐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 누군가에게는 바쁜 1년을 보낸 자신에게 주는 위로, 풍부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로 새로운 한 해를 살기길 용기를 주는 밴드 음악 세 곡을 소개한다.



▲ 출처 : 바이브

♪ <Best Part> - DAY6 (데이식스)

"나에게 쥐여지는 매일이 Gonna be my Best part 한 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 언제나 끝일지 모르는 지금이 Best part"



▲ 출처 : 바이브

♪ <STARLIGHT> - 엔플라잉 (N.Flying)

"단 한 번이라도 그댈 보고 싶어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날 기억할까 내게 남아 있어서 진하게 차는 파도 속에 고요하죠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피어나죠 멀리 속삭여 STARLIGHT"



▲ 출처 : 바이브

♪ <찬란> - 나상현밴드

"이렇게 함께 걸어가 이 모든 순간의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낸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학우들에게 지난 한 해는 어땠는가? 필자에게는 졸업과 취업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였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회선을 다했던 일 년의 시간이 찬란하게 느껴진다. 이 곡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낸 모든 이들에게, 그 시간이 언젠가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지금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환한 한 해를 시작해보자!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오늘의 작가

색감의 미술사 - **카렌 오닐(Karen O'Neil)**



Coffee Pot & Orange 20" x 20" Karen O'Neil



Lemon, Pink Glass Bowl and Tulips 20" x 20" Karen O'Neil

유화는 맑고 투명한 색감을 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단숨에 깨부수 화가가 있다. 현대 유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카렌 오닐'이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화가이자, 뉴욕 미술 학생 연맹과 우드스탁 예술 학교에서 회화 강사로 일하고 있다.

1983년 매사추세츠 예술 대학 회화 학사 학위를 받은 카렌 오닐은 그해 프로빈스타운에 살게 됐다. 덕분에 그 기간에 그곳에서 헨리 헨슬러와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플로리다에 있는 나폴리 미술관, 뉴욕 킹스턴의 파크 웨스트 갤러리, 보스턴 디자인 센터의 에지워터 갤러리 등 다양한 곳에서 활발히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 SNS에서 유

명한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높은 채도의 색감과 이로 표현하는 명암이 특징이다. 2021년 뉴욕 미술 학생 연맹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렌 오닐은 "창과 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통한 집 안 바닥과 벽의 색상 변화를 보는 것"이 본인의 예술의 시각적인 즐거움이라 밝혔다. 이런 자신의 즐거움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낸 덕에 관람자들은 그림을 통해 그녀의 시각적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이 궁금했던 필자는 연락을 넣었고, 운 좋게도 그녀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색상을 통해 시각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그림 그림 때 "마치 시인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보통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는 기자의 질문에 "먼저 빠르게 그림을 그린 다음, 흥미로운 색상 관계가 있는 넓은 영역을 작업한다"고 답했다. 오닐로 투명한 색상을 만드는 비법이 있냐는 질문에는 "비결은 없습니다"라며 "그저 많은 인쇄 시kin과 색상 혼합, 그리고 색을 서로 연관시키는 색상 간의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저를 팔로우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젊은이가 제 작품에 반응해 주셔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